

광주 고교에 '진로·학업 설계서' 보급

시교육청 전국 최초 '빛고를 꿈대로 진로대로' 제작 진로 결정→계획 수립→설계→실천 포트폴리오 작성

전국 최초로 '진로·학업 설계서'가 제작돼 광주지역 학교에 보급된다.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고교 학점제를 대비하고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진로·학업 설계서 '빛고를 꿈대로 진로대로' (이하 빛꿈진·사진)를 제작해 보급한다"고 13일 밝혔다.

학생 선택형 교육과정 체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과 진로에 따라 수강 과목을 선택해 학습하게 된다. 학생들의 진로 설계와 선택능력이 중요해질 수밖에 없어 일선 교육현장에서 '빛꿈진'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빛꿈진'은 고교 1학년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설정하고 선택해 개인별 교육과정

을 설계, 학습 과정을 기록·성찰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학생들이 학교의 교육과정과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진로의사 결정'→'진로 계획을 수립'→'개인별 교육과정 설계'→'성장을 위한 실천' 등의 단계로 이어지는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게 시교육청 측의 설명이다.

또 진로 탐색과 과목 선택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로 꼽히는 '과목 선택 가이드', '학과 및 직업 정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안내도 담겨 있다.

우선 시교육청은 빛꿈진을 고교학점제



광주광역시교육청

연구·선도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배부한다. 학생들의 진로와 교육과정 선택, 학업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된 '교육과정 지원팀'이 협력해 상담하고 지도할 수 있

도록 할 예정이다.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면서 흥미와 적성에 따른 과목을 선택해 학습하고, 학교는 개별 학생의 진로 변화 경로를 파악해 과목 선택과 과목 학습 이력 등을 다각도로 지원한다.

일반고 학생들에게도 PDF 파일 형태로 제공해 공유하고, 진로 전담 교사(14일), 1학년 부장(17일), 교육과정 담당자(21일) 등 순차적으로 연수를 진행해 빛꿈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철영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교육과정팀 장학관은 "학생이 본인의 진로 개척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자기주도적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빛꿈진'을 제작해 보급하게 됐다"며 "모든 학교가 학생의 흥미와 적성을 고려한 진로탐색과 학업설계를 지원할 수 있게 요청시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4차 산업혁명 리더 양성 광주대, 117억 투입한다

교육혁신·맞춤형 인재 양성 혁신 전략 수립

광주대학교(총장 김혁중)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대학혁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회 맞춤형 인재양성을 목표로 총 117억 원이 투입되는 프로젝트다.

교육부가 실시한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된 광주대는 5개 분야의 혁신성장 전략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발맞춘 맞춤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실무중심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융복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회수요를 반영한 창의융합·현장실무 전공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회 맞춤형 연구역량 강화 지원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체계 강화 ▲사회 맞춤형 학과 운영 등이다.

광주대는 먼저 1차년도 시행계획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사회 맞춤형 인재 육성과 최고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잡고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키로 했다.

창의융합 현장실무 교육과정과 사회

맞춤형 교수 학습 지원시스템 고도화 등 교육혁신에 12억 원, 학생들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교육환경혁신 분야인 첨단 스마트 강의실 구축, 도서관 환경 개선, 고품질 교육 기자재 지원에 13억 원이 투자된다.

특히 '사회 맞춤형 학과 운영'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선정, 교육과 교육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지역기업과 채용 약정협약을 맺는 등 현장실무교육 확대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광주대 관계자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산학공동교육과정 등 다양한 실무 중심 교육을 확대 운영해 지역강소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은 물론, 취업연계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업관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대의 이번 프로젝트는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대학 기본역량진단 결과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됨에 따라 이뤄졌으며,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39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2019 전국 SW교육 페스티벌 10월 11~12일 여수엑스포 전남도교육청

'2019 전국 소프트웨어(SW)교육 페스티벌'이 오는 10월 11~12일 여수엑스포 일대에서 열린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남도교육청이 주최하는 '2019 전국 SW교육 페스티벌'을 여수에 유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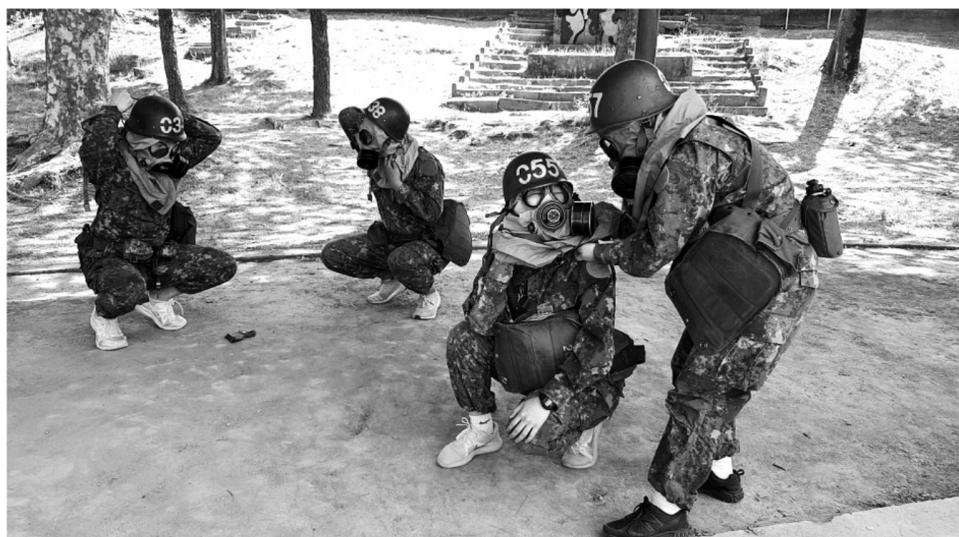
전국 SW교육 페스티벌은 전국적으로 고른 SW교육 문화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방에서 개최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올해 페스티벌에는 SW교육에 관심 있는 전국 5만여명의 학생과 학부모 등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2016년부터 4차 산업혁명에 맞춰 SW교육 관련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전남SW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있다. 가상현실(VR) 콘텐츠와 앱(App)개발 체험, 아두이노 로봇 코딩, 드론 경연 등 SW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이런히 도교육청 미래인재과장은 "전국 SW교육 페스티벌 유치로 지역 학생들에게 SW교육 관련 다양한 신기술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올해는 전국 SW페스티벌과 전남SW페스티벌을 연계해 더 풍성한 프로그램과 체험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조선이공대 군사학과, 31사단 병영현장실습 조선이공대학교(총장 조순계) 군사학과 1학년 57명은 최근 2박3일간 31사단을 방문, 병영현장 실습을 진행했다. 이번 병영현장실습에 참가한 학생들은 총기제사·걸음과 행진·개인화기·화생방 등 훈련을 받았으며, 부사관 선배들과의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 <조선이공대 제공>

동신대, 전남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쿠킹 클래스' 개최

동신대 식품영양학과가 위탁운영 중인 전남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센터장 노희경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최근 동신대 산학협력관 세미나실에서 '2019년 가족과 함께하는 요리보고 조리보고 쿠킹 클래스(Cooking Class)!'를 개최했다.

행사는 오전과 오후로 나눠 두 차례 진행했으며 지역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학부모 1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전문가들의 교육을 통해 당과 나트륨 섭취를 왜 줄여야 하는지, 식품 알레르기는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등을 배웠다. 또 가족의 얼굴을 표현한 제당·저염 도시

락을 아이와 부모가 함께 만들며 소통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희경 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 어린이들의 균형 성장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국가근로 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사업' 광주여대 대학일자리센터 4년 연속 선정

광주여자대학교(총장 이선재) 대학일자리센터가 한국장학재단에서 주관하는 '국가근로 장학사업 취업연계 중점대학사업'에 4년 연속 선정됐다.

취업연계 중점대학 사업은 국가가 장학금을 지원해 졸업을 앞둔 4학년 학생들의 근로경험 기회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취업역량을 강화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하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신청자격은 소득분위의 제한 없이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졸업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올해 2억 2680

만원을 지원받아 60여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또한, 대학일자리센터에서는 학생들에게 직장매너 및 기본 직무교육을 실시해 근로기간동안 보다 효과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여대 대학일자리센터 이준수 센터장은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기관에서 희망직무를 경험하고 현장에서의 실무를 체험함으로써 취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희중 기자 chae@kwangju.co.kr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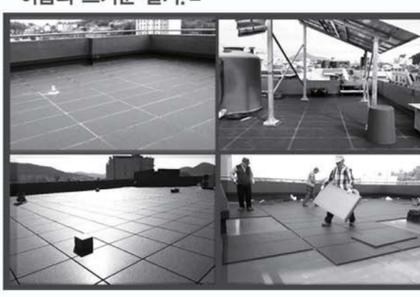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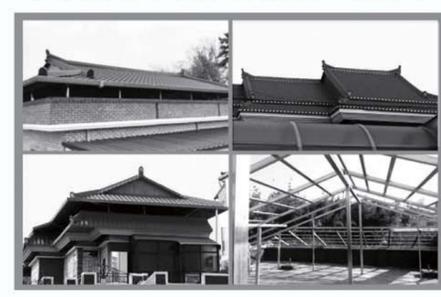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역사 현장에서 독서 토론하기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역사는 살아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역사 이해는 몸과 실천적 차원에까지 올라가야 한다. 특히 5.18민주혁명의 역사 이해는 더욱 그러하다. 5.18민주혁명의 올바른 정신과 가치를 몸과 마음에 새기기 위하여 학자, 작가들의 강의를 듣고, 이어서 강사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 기 간** 2019년 5월 23일, 24일, 30일, 31일(총 4회)
- 시 간** 오후 3시 ~ 6시
- 장 소** 광주5.18민주화운동기록관 7층 (동구 금남로 221)
- 대 상** 중3+고등학생(20명) + 학부모(10명)
- 지 원** 학생 1인당 4만원 교통비 지급(한 단체 당 최대 80만원 지원) + '책' 무료 배부
- 신 청** ☎ 010-5205-5668 (문자로 연락 바람 단체 지원 환영)
- 교육내용**

시 간	내 용	담당강사
1 5월23일(목)15~18시	1. 인문강의 청년의 용기와 도전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한승원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2 5월24일(금)15~18시	2. 소설강의 책 <소년이 온다>의 내용과 의미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3 5월30일(목)15~18시	3. 조별토론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박성천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4 5월31일(금)15~18시		1.강사:심옥숙박사 2.강사:장정희박사 3.토론:박해용박사

●주관 | 소크라테스대학법연구소 ●주최 | 전남남도교육청 ●후원 | 5.18민주화운동기록관 / (사)인문지행